

# 도심 낙태죄 폐지 집회...“임신 중지 여성 범죄자 낙인찍기 그만”

한겨레 원문 | 입력 2018.07.07 20:35 | 수정 2018.07.07 21:15



[한겨레] 16개 여성단체 광화문에서 “낙태죄 폐지하라”

천주교 신자·청소년·산부인과 의사 “임신중지 죄 아냐”

낙태죄 위험 심리 중인 현재로 행진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저녁, 검은색 옷을 입은 시민 5000여명(주최 쪽 추산)이 광화문광장을 메웠다.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험 소송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성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가 시작이다’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낙태죄를 여기서 끝내자”고 외쳤다.

16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광화문에서 전국단위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주최 쪽은 “지난 5월24일 현재의 낙태죄 위험 소송 공개변론 이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다양한 여성들이 연단에 올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자신을 천주교 신자라고 소개한 ‘베로니카’씨는 “최근 성당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모습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여성의 임신중지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하느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아니라 여성 그 자신이다. 교회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죄에 등 돌리지 말라”고 말했다. 임신중지를 두 차례 경험했다는 50대 여성 ‘가은누리’씨는 “학교에서 배운 ‘출산 후 100일 정도는 임신에서 안전하다’, ‘월경 후 1주일만 임신에서 안전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가르침은 제 몸과 전혀 맞지 않는 영터리 지식이었다. 국가는 학교의 가르침을 믿었던 제게 벌을 줄 수 있냐”고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청소년도 발언대에 올라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인공임신중절은 비상구 앞에 있는 여성에게 시민으로서 존엄한 삶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 이슈 검색어

7.7 오후 11:31

- 스웨덴 잉글랜드
- 일본 지진
- 미스터 션샤인
- 그것이 알고싶다
- 마초이 유리나
- 식약처
- 로또814회당첨번호
- 모모랜드
- 러시아 크로아티아
- 해리 케인

###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사회	경제	국제
----	----	-----	----	----	----

고혈압 약 확인해보세요... ‘발암 물질 함유’ ... “물 많으면 녹조없다”...4대강 예산론자도 ... 아침부터 장사진...중국 ‘따이공’ 연세점 싹... 스포츠조선 전 사장 “장자현 또 다른 접대”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팅방에 올라온 ‘충...

“고양이가 건드려서...” 전기 레인지 화재 비상 인천국제공항, 난민 신청 이집트인으로 ‘북... “편파수사 규탄” 3차 집회...매번 수만 명 집... 일본 지바현서 규모 6.0 지진...기상청 “국... 대체복무제 도입 기다리는 여호와의 증인들...

\* 최근 30분간 집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늘의 이슈포토



‘포두48’ 장원영 모두의 1픽 될까



왜 엄마들은 성남시장을 ‘마리 은수미네트’라 부르나



이국종 “김성태 어젯밤 비대위 원장직 제안...거절”



여왕은 52년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 주요뉴스

‘4%’ 바늘구멍 통과 같은 난민 인정...신청 ... 경찰, 배송방해 택배노조원 전자총격기로 체...

청소년인 '하정'양은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 후 학업을 중단하고 빈곤이 심해지는 등 악순환을 겪는다. (임신  
이유와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센터, 두움마, 뉴스 편집위원회  
으로 결혼한) 10대 부모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임수술사 이후의 삶에 대해 교육  
기사배열책임자 : 이상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주연  
하지 않는 국가에서 낙태를 막는 건 삶을 주체적 선택할 권리 박탈하는 것"이라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그밖에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  
장애 여성, 비정규직 여성, 대학생 등이 연단에 올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임신 중단 원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을 설립한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고펜츠가 직접 연단에 올라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고펜츠는 "임신중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거의 모두 합법인데 왜 한국에서는 불법인가"라며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고,  
의료서비스는 절대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경찰서와 현재 쪽인 인사동을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복귀해 자유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집회현장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주희 쪽은 서명을 모아 현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 [©한겨레신문 :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내 가족이 죽었는데 '개값' 50만원만 주겠다고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3차 해회역 시위에 6만명 모였다  
 폼페이오, 방북 마치고 도쿄로...김정은 면담 여부 확인 안돼  
 김성태, 이국종에 비대위원장 제안...이 "내공 부족" 고사  
 월드컵과 노무현, 그리고 윤도현 (2)

0

맞춤뉴스

by



'낙태죄 이제 끝입니다! ... 낙태죄 폐지 촉구 행진'  
 배추 심던 이장님, 컴도사 된다면? PR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체지방에 올라온 '충격 폭로'  
 1명 사망·2명 실종...높은 파도에 동해안 해변사고 잇따라  
 진주서 3m 길이 싱크홀 발생...트럭 뒷바퀴 빠져  
 '그냥 감옥 갈래'...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 반성  
 스포츠포조전 전 사장 '장자연 또 다른 접대' 진술  
 "물 많으면 녹조없다"...4대강 예산론자도 무더기 포함

전체 댓글 0

댓글 운영정책

좀 또는 소셜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직 댓글이 없습니다.

(단독) 대법, 고령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제출...  
 "물 많으면 녹조없다"...4대강 예산론자도 무...  
 (이슈플러스) 3인의 증언...'장자연 사건' 새...  
 폼페이오 "비핵화 진전"...12일 미군 유해 송...  
 (단독)국민연금, '삼성합병' 감사 일부 내용...  
 마츠이 주리나, 활동 중지 발표...'프듀48'도...  
 반갑다 K리그... 3경기서 13골, 확고한 재계...  
 인천항서 국내 첫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발견...

색선별 포토



[스포츠] "45G" 추츠투레멘 무세운 쥘주 엠스플뉴스



[사회] 당노 앵들 둔 엠마 엠 료정책 배꾸다 조선일보



[기타] 채뽀뽀-레소생 부각 마 세라데 기블레 서울경제

엔터테인먼트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kstar.tv**  
 KSTAR GROUP

G마켓 하프클럽 옥션 위메프 쿠팡 11번가

1/9

세련여름주얼리 최대 25% SALE	한여름에도애매 사랑받는이유!	발톱 안깎아? 이거면 끝!
고급스런 실크 인기폭발!	누적판매4만장 매트리스초특가	올여름베스트~ 마음애숙~들어!
반을 폭주! 여름엔시원하게	닥스/헤지스 전품목 할인중!	폭풍인기행진 전상품~세일!
지금~반을향해! 여름 특기세일!	고급여성수제화 여름 10%세일	세탁실에 필수 좁은공간에GOOD